

제 2 강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1강 복습

- 신앙 다듬기를 위한 함께 더듬기 : 물음과 대화
- 내 믿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 믿음의 통전성 : 지적동의, 감정적신뢰, 사랑실천
- 믿음과 사랑과 삶
- 믿음과 앎
-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내용과 태도

I. 1강 복습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는 첫 시간이라 이번 강좌를 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10주에 걸쳐서 함께 더듬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뭔가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이번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성찰할 기회를 주어서 더 넓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강의 안내와 더불어 한가지 다룬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지요.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 즉 자신의 욕망이나 종교적 욕구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신념을 기독교 신앙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믿는다는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믿음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으로의 도약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또 믿음은 인간 정신의 3 요소라 할 수 있는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행위가 고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도 함께 생각했지요. 믿음이 교만, 광신, 독선으로 흐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믿는 사람과 그 사람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은 늘 이런 왜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통전적인 것이고 인격 대 인격의 신뢰라는 차원이라면 믿음을 사랑에 비유할 수 있고, 사랑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이듯이 믿음 또한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전혀 모르면 사랑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론 완전히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알게 되면 더 깊어지는 사랑이 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앎과 모름의 이중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에게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핵심적 신앙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또 그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과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체험을 통해, 공동체의 예배와 활동을 통해, 때로는 자연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 믿음을 확증하며, 또 다시 체험합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 가운데 그리스도 신앙의 한 태도가 형성되는 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보다도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더 실제적이라는 것이며, 또 예수라는 한 인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지향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무엇인가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I.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고유명사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뜻하는 보통명사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익숙하게 말하기 때문에 한번도 이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명제는 그것 자체로 참과 거짓을 논하기 어려운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신앙고백적 명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니, 여러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왜 그리스도이신가?

17분이나 오셨으니 돌아가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거나 배운 얘기를 하시지 말고 자신의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이렇다!!!”

◎ 서로 나누는 시간

000 : 저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저절로 된 측면이 있지만 실존적으로 제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공관복음서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000 :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물어보셨을때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제가 이런 고백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예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한 것과 같은. 지금 제 생각에 예수는 사회적 혁명을 했던 사람, 매우 무모하다랄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000 :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유명사로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질문 자체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 생각해요.

000 :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한문덕 : 그럼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에서 위대함을 보여준 성인? 알겠습니다.

000 :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육받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는 모델,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가 예수인가?”라고 물으셨다면 저에게 굉장히 힘든 질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물으신다면, 역시 십자가 사건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때문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래 근본이 하느님이셨지만, 하느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천한 인간의 장소로 내려오신 것,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0 : 저는 감리교인 부모 밑에서 성령충만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뱃속까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 그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이 제게 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00 : 교회를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입니다. 청소년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20대 초기

에 교회를 다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쳐 갈구하는 심정이 생겼고, 24살 제대하면서 인생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보수적이었지만 청년회는 진보적이었고, 저는 청년회 활동을 꽤 열심히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동안의 고민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 몰랐다가 뒤에 깨달은 것처럼, 저 자신도 그런 걸 깨달았지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옆에 와 있었네. 살다보니깐.

000 :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000 : 전 그동안 제가 믿었던 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저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수님은 제게 일종의 삶의 모델이라고나 할까요?

000 : 최근까지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성서에 쓰인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라는 사실도 모르고 교회에 다녔었지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000 : 저는 교회에 다닌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000 : 4-5년 전까지 제게 예수는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하는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또 제 삶의 체험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 것 같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00 :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땅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서로 대화하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말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지요. 또 얘기하다보면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얘기를 듣다보니,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배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여쭙 것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좌는 신학 강좌이지 종교학 강좌는 아닙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한 발을 그리스도 신앙 안에 디디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 자신의 실존과 밀접히 연관된 그 무엇을 성찰하는 것이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신학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이 바로 그리스도교를 탄생시켰고, 성서 저자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재해석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일종의 신앙고백과 간증을 하셨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설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의 의미?

- 다원적 상황
- 세속화
- 사회경제적 착취와 고난
- 성불평등과 소수자들의 차별
- 생태계의 위기
- 의미의 상실



그림 출처, <http://ask.nate.com/qna/view.html?n=6251422>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명제가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특히 한국과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전통종교와 많은 외래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마다 저마다의 진리를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의 의미는 무엇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인가?

둘째로,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고,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인간의 합리적 이성활동으로 충분하다는 데 대하여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에 대해 혐오감을 표현하는 반종교적 흐름이 있고, 종교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종교를 넘어 이제 종교 그 자체가 필요없다는 무종교 시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전 세계의 현저한 빈부격차 속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욕망의 정점에서 계속되는 사회경제적 착취의 불의한 상황에서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넷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직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조차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에서, 또 장애인,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극빈자, 노숙인 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벌어지는 그 그늘진 자리에서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섯째, 물질문명의 건설과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생존의 바탕이 되는 지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이상기 후에 의한 재난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여섯째, 도구적 이성의 사용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속에서, 상품화되고 대상화 되는 인간이 겪는 의미 상실의 시대에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꽤 편리하고 넉넉해졌고, 옛날에 비하면 분명히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것인가? 이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매우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 예수가 자신에게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지만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떠 보면,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자리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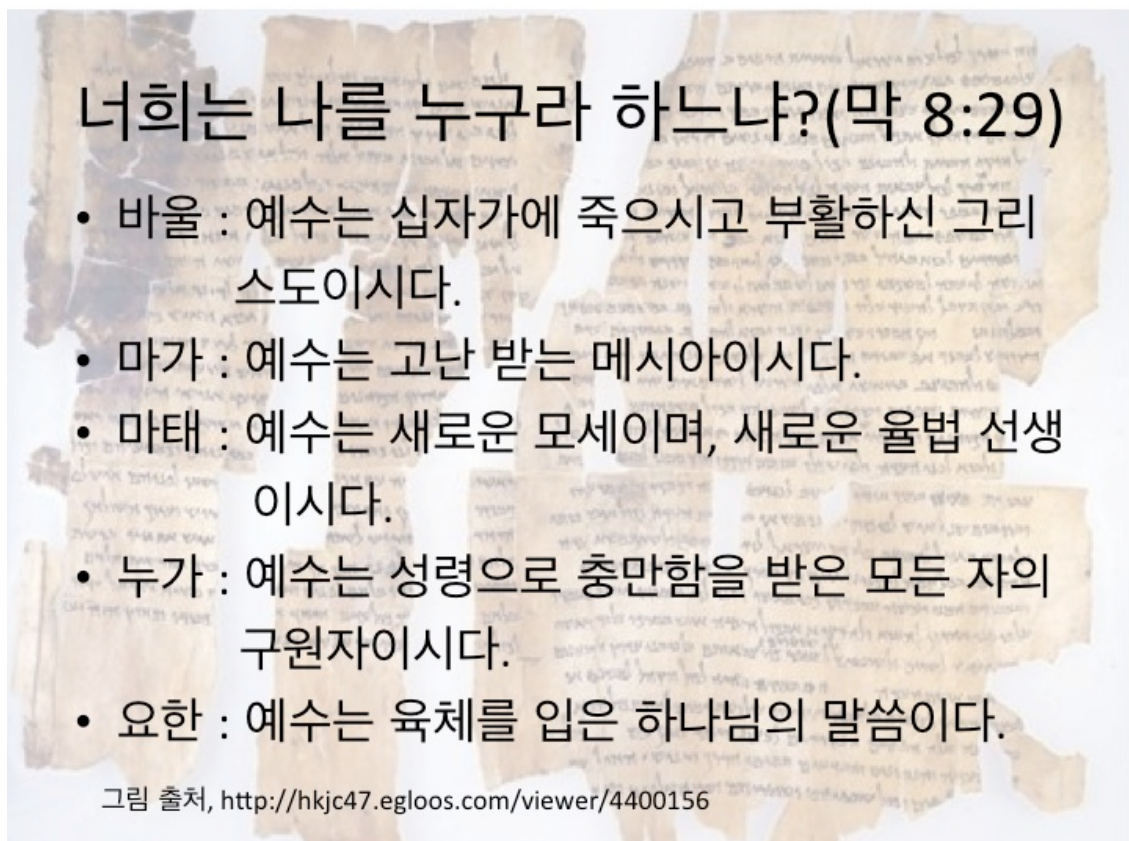
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협소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물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며, 가르치며, 행동했는가를 묻고, 그의 원칙과 가르침에 입각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바라며,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III. 성서와 전통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그간 그리스도교 전통은 예수에 대해 뭐라 말했는지 살펴 보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가이사랴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막 8장 27, 29절)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며, 나와 예수의 관계는 무엇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막 8:29)

- 바울 :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 마가 : 예수는 고난 받는 메시아이시다.
- 마태 : 예수는 새로운 모세이며, 새로운 율법 선생이시다.
- 누가 : 예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모든 자의 구원자이시다.
- 요한 : 예수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림 출처, <http://hkjc47.egloos.com/viewer/4400156>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성서는 예수 사후에 쓰인 문서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쓰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이 쓰였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복음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였지요. 편지들과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신앙고백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바울의 대답부터 살펴 볼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간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다마스쿠스 체험을 통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부활의 빛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쌍으로 등장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실한 바리새파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실 날이 올 것이고 그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 체험을 통해 바로 그 종말의 때가 다가 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종말이 되면 악은 끝장 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바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란 바로 로마제국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로마제국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예수를 로마가 죽였으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 평생을 예수 선포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로마의 문화가 로마제국의 전 영역에 걸쳐 가득했던 시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선포는 제국 각 지역에 있던 신화와 엮이면서 예수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게 되는 경향도 생기고, 나자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몰래 모여 사람을 잡아서 피를 나눠 먹는다는 등의 헛소문이 돌기도 했지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가 요청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서의 저자였습니다.

여기서 사복음서의 예수에 대해 상세하게 다 하기가 어려우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서의 예수는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었으나, 마가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벌인 하느님 나라 운동은 당시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권력을 잡고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되었기에 예수는 결국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그 예수, 그런 방식으로 섬기셨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마가의 고백입니다.

마태에 오면 예수는 새로운 모세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됩니다. 그가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는 모세 오경을 대치할 만큼 신전하였고, 더욱 파격적이었고, 율법의 핵심을 꿰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자신도 어디를 가든 예수의 이 말씀을 전하여 다른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태에게 예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준 그래서 임마누엘을 느끼게 해 준 의미에서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모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을 이어서 계속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길 잃고 헤메던 이들을 제 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거기 계셨던 그 지혜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고, 예수라는 이 생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초기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해한 예수의 모습은 이렇게 저마다 서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러한 신앙고백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무엇을 하신 것인가? 그것을 통해 예수는 어떤 분이 되셨나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아담이요, 생명의 첫 열매요, 섬기는 메시아요, 새로운 모세요. 우주의 구원자이며, 태초의 말씀이라는 고백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들을 통해 얻게 된 예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막 생성되고, 주변 이웃 종교와 다른 문화의 사회로 전파되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나,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나,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은총을 내리시는가라는 물음보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물음이 본격적으로 제기 됩니다. 변화의 과정을 잠깐 살펴 보지요.

성서에서 교리로

- **성서** :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 **교리** : 구세주이신 예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무엇인가?

복음서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주었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당대의 권위를 찰개 여기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체험했기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예수를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여겨졌고, 새롭게 탄생한 기독교에서 예수는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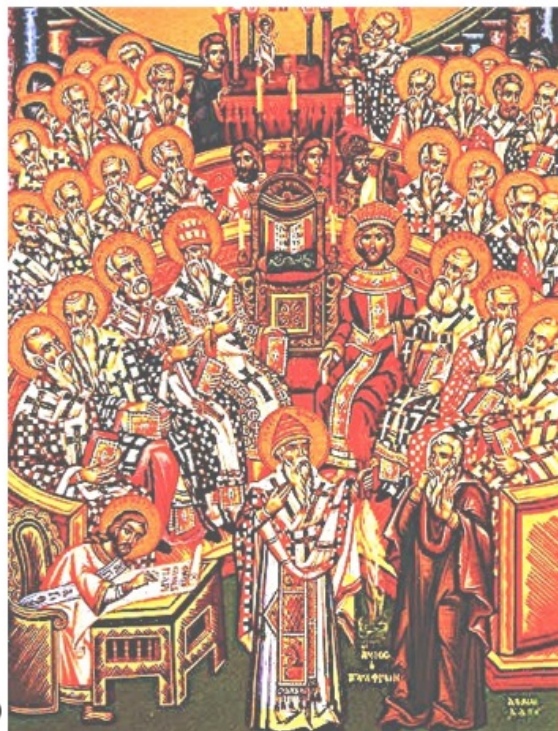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와 신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주 이른 시기에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초반에는 예수와 하신 일, 예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었으나, 기독교의 선교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부상하였고, 예수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수많은 토론을 거쳐 아래와 같은 신앙고백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리고 또 오직 한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신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 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림 출처, http://kcm.kr/dic_view.php?nid=37949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 예수를 피조물로 보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아리우스파를 파문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동질성을 강조하여 만든 니케아 신경을 계승 발전시켜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최종 채택된 신앙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은 사도신경과 더불어 로마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와 루터교 등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받아들이는 권위 있는 신경이라 할 것입니다. 이 신경에 보면 예수와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이요(Deum verum de Deo vero), 동시에 혈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심(Et incarnatus est de Spíritu Sancto ex María Vírgine, et homo factus est.)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하느님과 참 사람으로 즉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모두 공존한다는 이 생각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증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교가 주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그럼 유대교의 소종파로 시작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예수가 어떻게 하느님이 되었는가?

- 초기기독교의 상황
 - 율법에서 살아 있는 인격으로
 - 생존과 선교(마르시온, 몬타니즘, 영지주의)
- 예수의 신성과 인성(451년 칼케돈 공의회)
 -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 vere homo : 대제사장의 역할, 대속제물 사상 (종교적 희생제의, 예언자적 죄의식의 결합)
 - vere Deo : 빌립 2:6, 요한 1:1
 -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는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성당, 6세기

그림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예수>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소종파로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유대인들은 물론 다양한 종파가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유일신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활동을 하시고 나서 예수 곁에 있었던 이들이 부활이라는 체험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된 모든 삶의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자, 율법에 따라 사는 삶에서 예수의 인격을 만난 이후의 삶은 질적 차원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교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유일신 신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기에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상들이 기독교로 유입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아리우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는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단지 인간일 뿐이고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지요.

또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배격됩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여겼던 마르시온(Marcion, 약 85년~ 약 160년)은 구약성경의 하느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약성경을 구약성경과 분리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만찬을 집전하면서 제병(祭餅, 라틴어: Hostia)과 포도주를 제병과 물로 대체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그의 그리스도론은 그 가현설(도케티즘)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구약성서의 하느님과 신약성서의 하느님은 같은 분이시고, 예수는 참 인간이심을 확고하게 하면서 마르시온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정경을 확립하고, 교리를 세우고, 또한 조

직을 정비해 갔습니다.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공존을 확증하는데,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으며, 구분되지 않는다는 모순처럼 보이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이런 결정은 교회가 다른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확고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둘 다 필요했을까요?

신성이 필요한 이유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그를 로마에 처형된 인간으로 소개했다면 아무도 예수를 따르거나 믿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성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세상의 현실을 악한 것으로 보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가상이라고 여기는 영지주의의 위협과 같은 외부 충격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중보적 성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어려움, 문제, 고통 등을 하나님께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 제물과 관련된 이해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할 사람은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고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죄의 대속자로서 예수는 전혀 흠이 없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인간으로써의 예수가 대속사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지요. 중세시대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의 필요성을 대속과 관련하여 말합니다. 나중에 구원을 다루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안셀무스에 의하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한한 존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께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생존과 선교의 목적으로 예수의 신성이, 인간의 중보자 되심과 대속사상과 관련하여 예수의 인성이 모두 공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중세시대에는 예수의 인간성보다도 훨씬 신성이 강화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두 본성이 혼합될 수 없다는 칼케돈 공의회 선언처럼 인간 예수의 고통이나 수난은 신이신 예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예수가 신이 되자, 중세에는 거의 예수에 대한 논의가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를 하면 되지요. 예수의 중보적 기능도 약화되기에, 마리아가 새롭게 중보역할을 하는 이로 등장하고요. 그러나 예수의 인간성은 종교개혁과 근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부흥하게 됩니다.

예수의 인간성

- 성육신, 대제사장
- 마틴 루터 : 속성의 교류
(communicatio idiomatum)
- 참 인간의 모범으로서의 예수
- 칸트 이후의 계몽주의
- 역사적 예수 연구

뢰트겐 피에타, 1370



그림출처
<http://m.catholic.or.kr/web/news/?flag=8&seq=103055>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나, 성육신 사상에서 보이듯이 예수의 인성은 확실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중세신학과 달리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을 통해 신성 또한 수난과 고통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시고 후회하시는 신 이해가 가능해 진 것이지요.

칸트에 오게 되면 고중세 시대에 벌이던 신에 대한 모든 형이상학적 요소가 부정됨으로써 오로지 도덕적 인간을 위한 필요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도덕적 모범이 되게 됩니다. 계몽주의의 시대가 꽃을 피우면서 새롭게 역사적 예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예수의 탐구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예수 탐구는 예수를 이해함에 있어 많은 새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역사적 예수 연구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잠깐 살펴 볼까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 역사적 예수 탐구 :

- 구(old) 탐구 -> 무(no) 탐구 -> 신(new) 탐구 ->
제3의(third) 탐구

• 결론

- 선포 : 하나님의 통치 – 삶의 충만함, 살롬의 상황
- 사역 : 귀신축출, 병자치유, 밥상공동체, 제자들
- 하나님과의 관계 : 아바(abba)
- 죽음과 부활

그림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예수>

‘구탐구’(Old Quest)라고 불리는 첫 단계의 역사적 예수 탐구는 1774년 라이마루스(Hermann S. Reimarus)에 의해 제기되어 슈트라우스(David F. Strauss), 바이스(Johannes Weiss), 그리고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신뢰를 둔 자유주의 신학이 바탕이 된 이 첫 단계의 탐구는 예수의 전기(biography)를 써보려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책 《예수의 생애 연구사》(1913년작, 원제:《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예수전들이 사실은 저자가 갖고 있던 생각과 당시 시대배경을 역사적 예수에게 투사한 것이라고 규명하여, 예수전들에서 묘사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초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던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 즉, 성인의 이미지일 뿐이지 역사적 예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당시의 학자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역사적 예수는 결국 학자들 자신의 이미지뿐이라는 좌절로 이 첫 시도는 끝나게 됩니다.

‘무탐구’(No Quest) 시기는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쾰러(Martin Kaehler)가 “진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선포된 그리스도다”(The real Christ is the Christ who is preached)라고 선언하였고, 바르트(Karl Barth), 브루너(Emil Brunner), 니버 형제(Reinhold Niebuhr and H. Richard Niebuhr), 그리고 틸리히(Paul Tillich) 등은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려는 시도에 대해 극도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무탐구’ 시대의 절정은 독일의 신약성서학자 볼트만(Rudolf Bultmann)이 주도하였는데, 그는 쾰러의 선언에 동의하여 역사적 예수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하고 신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실제로 무엇을 말했고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와 기독교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러나 볼트만의 애제자 에른스트 케제만(Earnest Kaesemann)에 의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신탐구’(New Quest)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과 달리 역사적 예수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예수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을 그 역사적 뿌리로부터 분리하면 그리스도 케리그마는 결국 현대판 가현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탐구는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고, 비록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역사적 보도가 아니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케리그마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적 예수를 ‘추론’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른바 후기 볼트만 학파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된 이 ‘신탐구’는 역사적 예수를 ‘추론’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 시대의 유대교와 초대교회로부터 차별적인 예수의 독특성(uniqueness)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불가피하게 유대교를 부정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독일 신학계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역사적 예수 연구가 1980년대 초반부터 북미로 그 자리를 옮겨 ‘제3의 탐구’(The Third Quest)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3탐구의 계기가 된 것은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와 방대한 문헌정보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제3탐구는 그 출판의 양과 연구조직, 그리고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학문적 방법론의 채택 등으로 인해 역사적 예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론이 문헌적이고 역사적인 비평인 것에 비해, 제3의 탐구는 종교역사학, 문화인류학, 그리고 다른 여러 사회과학적 방법을 폭넓게 사용하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그 특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예수 세미나’(Jesus Seminar)에 속한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제3탐구의 특징은, ‘신탐구’와 비교해 예수의 유대적 배경을 강조한다는 점이며,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본래의 예수 전통, 즉 다양한 양식의 예수 전승 가운데 가장 초기의 전승층을 찾아내기 위한 ‘최소주의적 역사비평 접근방식’(minimalist historical-critical approach)을 선호하며, 구체적으로는 ‘층위학(層位學)적’(stratigraphic)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들을 통해 알게 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예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 예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겠지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세례요한의 운동의 가담한 예수는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던 반면, 예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세계가 어떻

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대로 살아보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께서 오신다면 이제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불평등, 고난과 고통을 없애실 것이고, 모두가 잔치의 손님처럼 즐겁고 풍성한 시절이 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오늘 바로 누리는 현재적 성취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특징적 행동은 크게 세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병자 치유요, 둘째는 귀신축출이요, 셋째는 평등한 밥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은 세균에 의한 것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 시대에는 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뭔가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반 대중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에 걸린 이들, 장애인들은 병으로 인한 아픔과 장애로 인한 불편함 이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멸시당하고 죄인으로 지탄을 받는 이중의 모욕과 그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이들의 병을 고치고 장애를 치유하여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다시 마을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자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친 것 외에 정결/부정 체계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배제하는 사회적 체계와 제도 속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고친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축출과 관련되어 고대의 귀신들림 현상은 대부분 견딜 수 없는 사회적 압박과 전쟁과 같은 심각한 외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정신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그것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양식이자 로마의 깃발에 그려져 있던 돼지를 몰살 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거라사에 주둔하면서 벌였던 수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족과 형제, 이웃을 잃고 살아야 했던 젊은이가 제 정신일 수 없겠지요. 예수의 귀신 축출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을 축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서로 나눠 먹는 것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따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구분되듯이, 1세기에는 더욱 더 심한 불평등 사회였지요. 그런 시절에 누구나 함께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100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함께 앉을 수나 있었을까요? 일단 여성들은 이 자리에 있기 힘들겠지요. 남자들만 모였어도 이 중에 80%는 양반이 아닌 상놈이었기에 한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파격적인 지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으면서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경험은 비록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도 5000명이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12 광주리의 부스러기를 남기는 기적으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을 아바(abba)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새벽 미명에 일어나 조용히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들은 분명 역사적 예수의 초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이들이 이런 예수를 경험하였기에 그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예수 탐구를 통해 오늘날 얻은 몇가지 중요한 지점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무엇인가?
- 해석과 고백 : 빛, 생명(생수), 진리, 길, 선한 목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메시아, 주님 -> 예수의 별칭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 숙고할 과제 : 십자가와 성육신
 - 하느님(全的 他者)으로부터 와서 너희를(他者) 위하여 사신 분
 - 하나님의 행동하는 말씀 : 행위와 존재의 일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곧 그동안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는 곧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묵시적 성향이 강했던 때였고, 여기 저기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들은 여지없이 로마군에 의해 학살되었지요. 로마시민들에게 있어 로마황제는 그리스도였고, 빛이었고, 거룩한 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올리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에는 이런 모든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자신의 욕망 등등. 예수에 대해서 성서가 붙여 준 여러가지 별칭, 빛, 생수, 진리, 선한 목자 등등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 오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에 대해 또 다른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어느 교우가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아마도 십자가와 성육신이 아닐까 합니다. 십자가와 성육신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고백했던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중세가 예수의 신성을 높였다면 오늘날은 예수의 인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더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십자가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 왕 되신 분,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은 홀로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너”에서 비롯되어 사람들인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즉 말씀(logos)은 누군가로 “부터” 와서 누군가 “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에 온전히 개방된 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보여준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일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가 최후의 심판의 위대한 비유(마태 25,31-46)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심판하는 주님이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의 도움을 아쉬워하는 가장 비천한 인간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가 그의 사명 즉 업적 또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행동하는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서양철학의 절대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는 그리스도교에서는 활동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뜻하며, 예수는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인간을 위해 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이중의 고백이 됩니다. 즉 순수한 개방으로서, 온전히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존재로 믿어지고, 그 실존이 전적으로 '순수한 봉사의 현실로서의 아들'이라면, 다시 말해 그 실존이 사랑을 '지냈을' 뿐 아니라, 자체가 사랑이라면 이 실존은 '홀로' 사랑 자체인 신과 동일하지 않을까! 또한 이 인간이 전적으로 그가 행하는 것 자체이고 말하는 것의 바탕이며, 온전히 남을 위해 있으면서 그런 헌신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라면, 즉 자신을 잃음으로써 되찾은 자라면, 그렇다면 그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인간, 바로 인간 현실의 성취 그것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는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 하나님도 신비이시지만 인간도 신비이다.
- 참 사람이 된다는 것 :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모습들 속에 의연한 자태를 보여 준 자가 있다면, 자기를 버리고 찢고 상처를 내는 자들을 향해서도 향기를 발하는 향나무에서 무언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자가 있다면, 한평생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일종의 낙이겠지요” (정재경)



그림 출처, <https://www.facebook.com/actor9081?filter=3>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은 오늘도 계속 재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참 인간이시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쉽게 이해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느님에 대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느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논의에 대해서 또 한 번 성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에서 조금 더 나

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신비이시지만, 인간 또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비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는 아직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에게서 참 인간됨이 무엇이라는 것을 훔쳐 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의연한 자태를 보여주는 인간이 있다면, 자기를 찢고, 버리고, 상처내는 인간에게 향나무처럼 향기를 내뿜는 이가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것이 한평생 낙이라는 어느 분의 말처럼 이제 우리의 참 인간됨의 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또한 참 인간 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몫이 아닌가 합니다.

-끝-

참고문헌

- 엘리자베스 A. 존슨,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한기독교서회, 2013.
 레자 아슬란, <젤롯>, 와이즈베리, 2014.
 월터 윙크, <참사람>, 한국기독교연구소, 2014.
 마커스 보그, <예수 새로보기>, 한국신학연구소, 1997.
 마커스 보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비아, 2013.
 김진호, <예수 르네상스>, 한국신학연구소, 1996.
 조순, <그리스도론>, 한들출판사, 2004.
 존 도미닉 크로산, <역사적 예수>,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요셉 라칭어, <그리스도 신앙>, 분도출판사, 2007.
 교황 베네딕토 16세 지음, <나자렛 예수>, 김영사, 2010.
 게르트타이센, <역사적 예수>, 다산글방, 2001.
 양명수, <한국교회, 인문주의에서 배운다>, kmc, 2014.

